

기업체감 우수도시 도약

남원시, 지원 방향 '현장행정·신속민원처리' 2톱체제로 전환

남원시가 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체감도 우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기업지원의 방향을 현장행정과 신속민원처리 2톱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 12월 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환경개선, 판로지원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후견인 활동, 찾아가는 기업 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에 나섰다.

남원시는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투자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 명절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남원시가 이자차액 3%(벤처, 유망기업 4%)를 보전한다. 2017년 말 기준 287개 기업이 603억 여원의 용자

지원을 받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매년 조기 소진되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관련 정부합동평가결과 남원시는 4개 분야(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또 기업지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후견인제와 멘토링을 확대한다.

후견인제도는 기업의 시장개척과 추가 투자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사전 법률검토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검토를 위한 멘토링은 기업체감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지표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얻었다.

남원시는 기업의 신바람 마케팅을 위해 국내의 시장개척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먼저, 관내 기업이 생산품 중 남원시가 직접구매 가능한 물품의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이

상 분야별 제품에 대해 물품구매 담당자의 생산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관련 정부합동평가결과 남원시는 4개 분야(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또 기업지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후견인제와 멘토링을 확대한다.

후견인제도는 기업의 시장개척과 추가 투자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사전 법률검토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검토를 위한 멘토링은 기업체감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지표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얻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저출산 극복 새 패러다임 주목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출산정책 연계 시너지 효과 합계출산율 전국 2위 기록

순창군이 눈에 띄는 다양한 출산정책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서면서 저출산 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순창군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출생통계'에서 2015년 합계출산율이 2.02명을 기록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해내에 이는 전국 2위의 성적이다.

올해 순창군의 정책은 더욱 진화한다. 우선 단기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눈에 띄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이어간다.

군은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 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를 위한 기초조사비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인다. 출산뿐만 아니라 임체적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이 병행된다. 임신부부터 산전관리 및 출산 이송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가정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과 기저귀 교체비용 지원 및 고품질 인산부위로 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탄생기립 아기주인등록증도 발급해 출산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아이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공을 들인다. 군은 먼저 어린이집 14개소에 1억 천여만원을 지원해 친환경쌀 및 안전공제회,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그룹홈 중사자 채용개선 및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추진해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최근 문을 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영유아들과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의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에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매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지역 매아리

임실군, 쌀 과잉문제 해결 논 타작물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비밀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의 공급과다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산 쌀 변동작물금을 받은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해 준다.

올해 논 타작물 목표면적은 280ha로 8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작물은 ha당 400만원, 일반작물.꽃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수급관리가 필요한 5개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대상작물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640-2683)이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기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세요"

순창군 10% 공제 혜택... 홍보 적극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군민 5,424명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군도 세금 징수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그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3,360명에 대하여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이를 보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충아트 특별전은 모든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바래봉 일원에서는 2월 11일까지 제7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리며 주요행사로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이 면허취득 취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사업 면허취득 농업인에 효자역할 톡톡

임실군이 추진 중인 소형농기계 교육사업이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사업은 3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와 굴삭기, 스카프터 등 소형 특수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사업을 추진한 결과 400여명의 농업인이 면허취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함께 상충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3톤 미만의 농업용 장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에도 교육비 지원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유도, 안전한 농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에 방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업인이 증가하면서 비치된 소형 특수 농기계를 직접 다루기 위해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부족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서, 앞으로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공충아트 특별전 연장

남원시(시장 이원주)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한 '공충아트 특별전'이 방문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는 2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

산림청 후원으로 받아 진행된 이번 특별전에는 공식 행사기간인 28일 동안 1만2천명이 넘게 다녀갔다.

공충과 아트를 활용한 '공충아트체험관', '공충생태관', '공충놀이터', '세계희귀공충표본관' 등 다양한 공충관련 예술작품과 많은 체험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 영인시농업기술센터 등 전국각지의 공충산업 및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이 지속되는 등 교육체험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도 학부모님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50여종 1000여 마리의 다양한 공충과 절지생물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관 관계자는 "특별전에 주신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전하며, 연장 기간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보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충아트 특별전은 모든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바래봉 일원에서는 2월 11일까지 제7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리며 주요행사로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있다.

/남원=유영철 기자